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선정

부안군, 체류형 관광객 유치 및 생활인구 증가 위한 창업자 육성

부안군은 2024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군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한 이번 공모에서 '부안군 체류형 생활인구 활성화 창업 지원사업'이 선정돼 도비 1억원을 확보하며 총사업비 1억 12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사업은 예비창업자 교육생 12명 모집, 교육수료 9명, 실전창업 7명, 간접 고용창출 10명을 목표로 추진되며 전문 창업교육 70시간 및 맞춤형 멘토링 60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특히 이번 사업은 체류형 관광객 유치 및 생활인구 증가를 위한 창업자를 발굴·육성해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목적으로 수립됐다.

지속적인 인구감소 추세 속에서 체류형 관광객 유치 및 생활인구 증가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고용창출, 경제적 혜택, 사회적 다양성 확보에 기여하는 면이 크다.

체류형 관광객은 단기간 관광객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숙박, 음식, 체험 등에 보다 많은 비용을 지출하기 때문에 관광 서비스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일자리가 창출되며 지역사회에 사회적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특징이 있다.

군은 오는 4월부터 참여자 모집을 시작해 6월 중 교육생을 확정하고 7월부터 사업초기자금 및 맞춤형 멘토링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업부터는 체류형 관광 분야 선도지역 현장 견학이 추가돼 보다 현장감 있는 체험과 배움의 기회가 제공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역량 있는 예비창업자들의 많은 신청을 기대한다"며 "체류형 관광객 및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내실있는 창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

이학수 시장 "시민 불편 없도록 적극행정 문화 확산시킬 것"

정읍시의 적극행정에 대한 노력이 빛을 발했다.

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해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추진계획 수립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 △적극행정 이행 성과 △적극행정 체감도 등 5개 분야 18개 지표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별도 평가가 실시되지 않은 2021년을 제외하고 종합평가가 시작된이후 3년 연속 최고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는 영광을 안았다.

시는 '시민이 공감하고 공무원이 실천하는 적극행정 공직문화 조성'을 목표 적극행정 매뉴얼과 가이드라인 제작해 배포했다. 또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지원, 적극행정 실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도내 유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적극행정 국민신청 우수 유공 기관·공무원'에 선정됐고, 전북도 주관 '적극행정 유공 도지사 표창'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행정의 결과를 얻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 3년 연속으로 우수 등급을 받은 것은 시정을 믿고 협조해 주신 시민분들과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공직자들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장, "부주의로 인한 산불 발생 예방 총력"

영상 간부회의 주재

이학수 정읍시장 (사진=정읍시청 제공)

정읍시는 18일 전 부서장이 참여한 가운데 영상 간부회의를 진행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학수 시장은 "봄철 건조한 날씨에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특히 부주의에 의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활동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최근 건조한 날씨에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산불의 주요 원인은 영농폐기물 소각과 담배꽁초 등 부주의"라면서 "부주의로 인해 산불이 나면 피해 규모에 따라 화재 원인 제공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라"고 했다.

이어 이 시장은 오는 28일 개최하는 '2024 정읍 벚꽃축제'를 대비해 안전관리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벚꽃축제 기간에 시민은 물론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시에서 주관하는 회의나 보고회 등에서 제시된 제안이나 의견 등을 개선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2023년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

심덕섭 군수 "군민이 감동할 수 있는 행정으로 고창을 위해 노력"

고창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020년 적극행정 종합평가가 시행된 이후 고창군이 우수기관에 선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평가에서 군은 기관장 적극행정 추진의지, 사전컨설팅 사례 평가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노력도 및 교육, 홍보 등 전 분야에서 고르게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전국 최초 농촌인력의 적정 인건비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인건비 안정 실현 사례가 민간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고창군은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 개정을 통한 적극행정 문화정착 기반조성과 함께 사전컨설팅 제도와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지정 등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제도를 확대했다.

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인원을 대폭 늘리고 최우수 선발 대상자에게 성과등급 최고등급을 부여하는 등 적극행정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 이에더해 고창군 누리집과 SNS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한 우수사례 전파로 군 전반에 적극행정 문화를 활성화했다.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상반기 지자체 적극행정 성과점검 우수 지자체' 선정으로 장관상을 수상하고 '2023년 전라북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치유문화도시 고창'이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해 전 직원이 협력하여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감동할 수 있는 행정으로 더 좋은 고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중소기업육성자금, 비제조업까지 확대

고창군이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기업이 협약 금융기관(NH농협은행 고창군지부, 전북은행 고창지점)에서 대출받는 경우 대출이자 중 일부를 지원한다.

올해는 지원대상을 확대해 기존 제조업체와 더불어 비제조업체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2월부터 신청·접수받기 시작해 현재 6개 기업에 총 25억원의 대출 승인을 완료했다.

앞서 군은 지난해 이차보전율을 상향(4%→5%)하고, 융자용도를 확대(운전자금→운전 및 시설자금) 했다. 고창관내 40개 기업을 대상으로 19억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금에 대해 3억4000만원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은 고창군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거나 휴·폐업 및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비제조업종 소상공인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운전 및 시설자금 용도의 대출금에 대해 연 5% 이내의 이차보전금이 최대 4년간 지원된다. 대출한도는 기업당 최대 5억원(제조업 5억원 이내, 비제조업 3억원 이내)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대상자 모집… 29일까지

정읍시 보건소는 18일부터 29일까지 스마트워치와 스마트폰을 이용해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를 돕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참여 대상자에게 무료로 스마트워치(활동량계)를 지원하고 '채움 건강' 앱을 연동해 의사, 간호사 등 보건소 전문인력이 신체활동, 영양, 건강상담 등 24주간(6개월)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모집인원은 선착순 80명이며 정읍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성인 또는 정읍에서 직장을 다니는 타지 중 혈액검사와 신체 계측을 통해 5개 건강위험요인(혈압, 공복혈당, 허리둘레,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중 1개 이상 보유한 사람이다.

단, 신청일 현재 관련 질환(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진단받거나 해당 질환의 치료를 위해 약물을 처방받은 사람, 전년도 참여자는 제외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역 소식통

정읍시,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에 따른 신고서 등 접수

지난달 6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정읍시가 관련 절차에 나섰다. 시는 개 사육농장 운영 신고서와 개 식용 종식 이행 계획서를 제출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특별법 공포로 인해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과 도축·유통·판매시설 등의 신규 추가 운영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은 법 공포일 3개월 후인 5월 7일까지 운영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법 공포일 6개월 후인 8월 5일까지는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내야 한다. 기한 내 사육 농장을 미 신고 할 때에는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됨과 동시에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시는 신고서를 제출한 농장을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해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하고, 폐업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 계획서 준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새만금개발 사업 관련 역량 강화 교육 실시

부안군은 18일 오후 3시 2층 대강당에서 관·과·소 직원 등 약 200여명을 대상으로 새만금 개발 사업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수립 계획 발표에 따라 직원들의 새만금 개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응력 강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진행됐다. 교육은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해양개발국 유희원 주무관이 강사로 초청돼 새만금 일반현황 및 기본계획, 사업 추진현황, 미래 비전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으며 새만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발 계획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한 직원은 "군의 새만금 3권역에 대한 개발 방향을 이해하고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는데 직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